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2024.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4. 4. 16.(화) 10:00~11:49
- ◆ 장 소 : 본청 5층 공용회의실
- ◆ 참석자 : 위원장 등 11명
  - 외부위원(9) : 모상현, 양재진, 박현정, 김병욱, 이정희, 은석, 김경미, 진미정, 이민옥
  - 내부위원(2) : 정책기획관, 복지기획관
  - ※ 배석 :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심의팀장
- ◆ 진행순서
  - 안건 심의(총 10건)
- ◆ 상정안건
  - 서울상상나라 운영 외 13건
- ◆ 회의결과
  - 적정 9건, 조건부 적정 1건

## □ 주요발언 내용

【10시 05분, 개회】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민간위탁 운영평가인 것 같습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간사 조직담당관 000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7기 마지막 회의인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000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000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법무법인 두울 000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00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000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00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000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000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000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서울시 복지기획관이신 000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회의 진행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10건이고, 신규 2건, 재위탁 6건, 재계약 2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설형 7건, 사무형 3건입니다.

심의 진행은 안건에 대한 저희 팀장의 요약보고를 거쳐서 예산담당관 예산검토 보고, 소관부서 질의·응답 후에 주심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듣고요, 참석 위원 간 논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출석 위원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적정, 조건부 적

정, 심의보류, 부적정, 총 4가지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해관계 유무 사전확인 및 회피신청 안내, 위원회 개최 시마다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심의·의결 회피신청을 해 주시고, 청렴서약서에 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벌써 2년이 금방 또 지나갔네요. 이제 마지막 심의인 것 같은데 성실하게 심의 진행하면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1〉 서울상상나라 운영(사무형 재위탁)

###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은 아이돌봄담당관의 “서울상상나라 운영”으로 사무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안녕하세요? 민간위탁심의팀장 000입니다. 1번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는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돕는 창의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추진근거는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무는 올해 10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재위탁을 통해 신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운영사업을 보면 전시분야의 경우에 체험형 전시를 연간 2회 정도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분야에서도 나눔, 감성예술, 주제별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노력하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이 2016년 3월부터 지금 두 차례 재계약을 통해 운영중이고 이번에는 재위탁을 실시하는데요, 상상나라가 규모가 상당

히 큰 만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 전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담당관 예산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산과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률, 물가 상승률 적용해서 편성되었고요, 사업비도 예산은 적정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동일한 수탁기관이 '16년부터 선정됐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업체가 제안·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 주관부서 입장 )

### **<위원장>**

○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아이돌봄담당관 돌봄총괄팀장 000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0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잡힌 걸 보니까 시에서 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상당부분은 자체 사업수입으로 예산을 잡더라고요.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걸 텐데 그게 예산을 밀돌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밀도는 만큼 시에서 더 지원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 〈주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일단 그런 절차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유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입장료 외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돈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서 전시라든지 이런 걸 기획할 때 민간이라든지 외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전시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런 위주로 먼저 활동을 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

## 〈000 위원〉

- 그럼 코로나 때는 추경이 들어갔었나요?



**<주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코로나 때도 추경이 없었습니다.

**<000 위원>**

○ 그래도 그렇게 해도 유지가 됐었어요?

**<주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네.

**<000 위원>**

○ 그러면 두 번째. 예상 수입이 넘었을 때는, 초과된 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그건 나머지는 시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죠?

**<주관부서 (아이돌봄담당관)>**

○ 그렇죠. 그것은 다 시에서 잡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을 적게 줍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 주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양 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저는 재위탁 걱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럼 1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1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2〉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시설형 재위탁)

### 〈위원장〉

- 두 번째 안건은 장애인자립지원과의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2번 안건,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송파구에 위치한 시설이고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중입니다. 종사자 수는 17명이고, 사업비는 내년의 경우 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9페이지, 10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경우는 서울시 거주 미성년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좀 어렵고, 민간위탁으로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발달단계별 재활운동 지원과 학년별 재활 지원, 그리고 취업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다만 자립재활 프로그램의 경우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프로그램별 대기현황이 좀 있는데요 다수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대기가 많고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좀 늘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저희는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운영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 2.6% 반영해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의견은 따로 없고요. 사업비는 전액 시설이용료 수입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어서 민간위탁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건비에서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2.5% 반영해서 민간위탁금을 요구하셨는데, 여기가 비법정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민간위탁금 인건비 편성을 할 때 호봉 상승분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포함되지 않도록 그 부분만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우리 000 위원님 나중에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 관계자 입실 부탁드립니다.

( 주관부서 입장 )

### 〈위원장〉

○ 간단히 어느 부서에 누구인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 **<주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장 000라고 합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 **<000 위원>**

○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랑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만의 독특한 측면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주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이 좀 다른데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유사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적응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청소년들, 20세 이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20세 이후에 사회로 나가시는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데 일정 프로그램이 9시부터 정규시간 하고 있고, 정규시간 끝나고 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프로그램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맞춤형으로 하고 있고. 시간도 보통 10시에서 11시에 시작해

서 7시 이후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고요.

가족지원센터나 다른 주간보호시설이나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역할이 조금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역할 간에 중복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중복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정책적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조금 보완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 한 1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 **<주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학령기가 지나고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주간보호시설처럼 주간시간 동안에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을 하시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미성년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대상으로 매년 발달 변화를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준도 조정을 하면서 맞

출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저 한 가지만요. 그러면 여기가 미성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초·중·고등학생도 포함하는데, 그럼 이 학생들은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인 거예요?

**<주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방과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나 다른 어떤 기관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오후 정도쯤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럼 오전에는 사실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주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아니요. 오전에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1 [장애인자립지원과]>**

○ 학생들은 오후 시간에 방과 후 시간에 이용을 하고, 오전 시간에는 청년 발달장애인들이 모셔다가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 **<주관부서1 (장애인자립지원과)>**

○ 정규시간은 7시까지입니다.

###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 주관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저는 걱정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나중에 통폐합을 좀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사회적응이라는 말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2005년에 ‘장애 아동 사회적응 통합교육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됐고 요대로 만들어진 센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평생교육센터는 이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추후에는 이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명이 좀 변경되면서 기관명이 변경돼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 20년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단 센터 명칭이 그렇게 정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가 좀 필요하다.

### **<000 위원>**

- 네, 많이 필요합니다.

### **<000 위원>**

-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

- 요즘에 사회적응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 사회적 포함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나한테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 **<위원장>**

- 여러 가지 개념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면 그것을 권고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 **<위원장>**

○ 그럼 권고 괜찮겠습니까?

**<000 위원>**

○ 네.

**<위원장>**

○ 그러면 2번 안건을 권고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권고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3> 보건환경연구원직장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시설형 재계약)**

**<위원장>**

○ 세 번째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환경연구원직장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3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직장어린이집은 경기도

과천시와 서초구 사이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위탁기간은 10월 말에 종료되면 현 수탁기관인 한국 아동보육복지협회와 재계약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08년부터 다수의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이고, 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시설에 있는 보육아동 수 표를 보시면 전체 21명 중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자녀는 2명밖에 안 돼서 앞으로도 직원 자녀가 계속 감소할지 증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팀장님 예산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23년 말에 이미 '24년도 상승률 반영해서 편성이 돼 있는 금액이고, 유사기관 비교했을 때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돼서 적정이라는 의견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 주관부서 입장 )

### **<위원장>**

- 착석해 주시고요. 간단히 우리 발표하실 팀장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총무팀장 000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저한테 운영계획서가 대상으로 왔을 때 페이지마다 아동 현원에 대한 자료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추가자료 요청드려서 받은 것으로는 지금 현재 직원 자녀 비율이 2명 이견 맞는 것 같고요.

###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네, 맞습니다. 3월에 새롭게 학기가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6명이었지만 졸업생이 됐고 현재는 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휴직자 같은 걸 좀 확인을 해보면 한 6월 정도에 또 한 3~4명 정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사실 지금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아니고 여성 근로자

300인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사실 대상은 아닌데 사실 있는 어린이집을 지금 우리가 없애자고 이야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요. 그런데 혹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이나 위탁보육 전환을 내부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사실 직장어린이집이 2021년하고 '22년까지만 해도 16명 정도로 굉장히 잘 됐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저희가 직원 300명 중에 3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주력으로 해서 했고, 최근에 또 2시간씩 시간도 내고 그러다 보니 직장어린이집의 실효성이 준 건 사실이고. 저희가 최근에 주변에 장군마을에서 재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년 정도 지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예상되고 있어서 한 3년 뒤에 한번 저희가 그걸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제가 사실 연도별 현황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면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21년도에 코로나가 한창이었거든요. 그때가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이용 아동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여기가 44명이었고. 그런데 '24년도에 지금 21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직원도 1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종사자를 보게 되면 종사자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만뒀어요. 그 중간기간에 혹시 직장 내 괴롭

힘이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저희가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어린이집은 그때 아마 그 만두신 상황이 2월 말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게 보통 아이들은 학기가 변동되기 전에 선생님들이 한 1년 정도의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연도와 학기가 시작할 때 선생님들을 교체하는 게 아이들과의 연속성이나 이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당시에 네 분 중에 두 분 정도는 결혼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또 개인적인 사항들이 맞물려가지고,

### 〈000 위원〉

- 이걸 여쭙본 이유가 어제 같은 경우도 서울시 산하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언론에서 막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동일 법인에서 9년 한 거잖아요.

###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 부분 때문에 질문드린 것이고요.

###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모든 전반에 걸쳐서 회계부터 해서 안전, 모든 걸 점검할 때 특별히 유념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하나만 좀 더 여쭙보겠는데, 이게 5억 미만 사무이기 때문에 종합성과평가 대상은 아니죠. 「영유아보육법」 30조에서의 평가인증을 했고, 거기서 지금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좀 과문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B등급이 종합성과평가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인 건지를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평가인증 A등급 받는 게 어려운 겁니까?

###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평가인증은 4개 항목에서 우수를,

### **<000 위원>**

- 보니까 우수던데요.

###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지금 평가등급을 저희가 가져왔는데, 사실 평가등급이 A, B, C, D 4등급으로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A등급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아동교사 1명이 경미한 아동학대의 그런 의심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원장이 자진신고를 했었고. 실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담당교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좀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등급이 좀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도 제기를 해서 이게 과하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결론은 각하되었지만. 그리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A 정도로 다시 판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관부서1 (보건환경연구원)>**

-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 **<위원장>**

-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 **<000 위원>**

- 저 하나만 질문해도 돼요?

### **<위원장>**

- 000 위원님 질문 더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 됐으니까 질문하시죠.

**<000 위원>**

- 예산을 보니까 유아반 교사 연봉이 990만 원인데 보통 이래요? 7호봉은 1년에 800만 원이고.

**<위원장>**

- 1년입니까? 이게 혹시 연봉 기준인가요? 연봉 기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파트타임인가요?

**<000 위원>**

- 예산에 2024, 2025 보면 유아반 교사 월급이 굉장히 낮는데,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님 아시겠지만 보육교사의 처우가 굉장히 대부분 낮은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 월 단위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000 위원>**

- 이거 보시면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이게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근무시간, 네네.

**<위원장>**

○ 파트타임이겠죠.

**<000 위원>**

○ 그럼 유아반 교사 두 명 다 파트타임이에요? 유아반 교사가 지금  
2명으로 나오는데 두 분 다 파트타임이에요?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000 위원>**

○ <붙임4> 43페이지입니다.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을 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런데 이게 급여가 작은 것은 시간제로 하는 경우일 것 같아요.

## 〈주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어차피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은 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시간이랄지 유연하게 근무를 유지하기 때문에 편성이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관부서 퇴장 )

## 〈위원장〉

-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이 보건환경연구원어린이집만의 경우는 아니고 지금 보면 서울시 청사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다음 소방사 어린이집들이던가요? 그쪽도 그렇고. 보게 되면 직원 자녀 이용도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업무지역 특성상 지역사회 이용도도 낮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들을 전반적으로 운영효율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이것에 관해

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심의보류로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아동학대가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처분까지 이루어졌던 법인을 재계약으로 계속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합성과평가가 있었으면 당연히 지금 75점 미만으로 나왔을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 지금 11월이니까 시간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회차에 한번 다시 검토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 조직담당관실 의견 주십시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위원님, 보류를 하게 되면 다음에 가서 똑같이 심의를 했을 때도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나 그것에 대한 걸 할 텐데, 지금 위원님이 보셨을 때 충분히 많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시설 자체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현 수탁업체, 법인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시면 아예 재위탁으로 조건을 달아가지고 조건부 적정으로 해주시면 부서에서 그걸 수용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계획을 변경해서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 〈000 위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은 계속해서 운영 유지를 하  
되 법인과 관련해서는 재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법인을 일단 선정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조건부 적정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조건부 적정으로.

**<위원장>**

- 그러면 3번 안건을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  
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4>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사무형 재위탁)**

**<위원장>**

- 4번 안건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  
단 운영”으로 사무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

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4번 안전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건입니다. 추진근거는 「지역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본 사무는 올해 말에 종료 예정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게 됩니다. 서울시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23페이지 앞부분에 좀 설명을 적었는데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서울시민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련 지식이나 인지율 향상을 위해서 '09년부터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아랫부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예산을 보시면 전체 34억 중에 오늘 심의하시게 되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은 약 5억 정도 예산으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전략 제시 및 실행, 지원, 그리고 정보통계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아래 통계 보시면 서울시민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고요. 코로나19 전과 그 이후에 연간 등록 인원을 보시면 '22년 대비 '23년 많이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 전보다는 아직 등록 인원이 좀 작고요. 그 이후

검진 사후 등록이나 6개월 이후에 추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좀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등록 인원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실 팀장님 예산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산과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상폭에 대한 조정이 조금 필요할 듯해 보이고요. 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수준으로 예산 요구했으나 사업비 중에는 등록관리업무와 홍보업무 간 비중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사업비 비중이 홍보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주된 업무가 등록관리를 지원하는 업무이면 이 위주로 사업비를 재구조화할 것이 요구되고. 만약에 홍보일 경우에 이게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다른 용역이나 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 주관부서 입장 )

### 〈위원장〉

○ 안녕하세요? 편하게 착석해 주시고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주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저는 공공보건팀장 000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하시는 사무위탁이 이 사업과 그다음에 심혈관 관련된 사업, 그렇게 두 가지를 하고 계시죠?

**<주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네.

**<000 위원>**

○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셨을 때 지금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주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저희 대사질환 평가 말씀하시는가요? 저희 대사질환은 예방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대사증후군 하면 질환은 아니고



요, 전체적으로 비만이 있는 환자가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으면 그것이 서로 연관이 돼 가지고 결국은 당뇨로 가고, 그 결과 심뇌 질환으로 더 합병증이 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저희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심뇌혈관질환으로 갈 수 있는 환자분들을 많이 예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지금 같은 법인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 〈주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네.

### 〈000 위원〉

- 지금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차 올려놓은 콘텐츠들을 보면 사실 활용도가 되게 낮은 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 〈주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저희가 홍보가 참 중요한데요, 대시민 홍보가 저희 이 지원단의 큰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그동안에 홍보는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좀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발했고, 그다음 홈페이지와 연관해서 또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에는 예약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좀 더 고도화해서 앞으로

계획은요 저희 모바일 헬스와 연결돼가지고 환자분들과 또 시민들이 서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내부 계획 중입니다.

### **<000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자면 '22년도에 인력 중에 장기간 팀장이 공석이어서 8개월 이상 그런 적이 있었는데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다 해결된 상황인가요?

### **<주관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지금 현재는 6분 해서 단장님은 비상근으로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직원 한 분 더 뽑을 계획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직원 면에서는 특별하게 그 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 주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저는 그냥 걱정으로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홍보된 내용들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올드하고, 이게 조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 과와 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걱정이고, 의견을 부기하는 걸로 그러면 가능할까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 정도는 그냥 전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전달사항으로 의견을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번 안건을 걱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면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5〉 서울시광역심리센터 운영(시설형 신규위탁)

### 〈위원장〉

- 5번 안건은 정신건강과의 “서울시광역심리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신규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5번 안건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광역심리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송파구에 설치할 예정인 시설이고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추진근거가 있습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년 반 동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서울시 마음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권역별 심리센터와 민간 심리상담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입니다.

27페이지 아래쪽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도 표를 하나 넣어 왔는데요, 광역심리센터가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 표를 보면 서울시에 정신건강 관련 체계가 중증 정신질환,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그런 것을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서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반시민 대상 중·저위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광역심리센터는 이번에 신규가 되는 시설이고요, 그전에 권역별 심리센터가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의 가장 오른쪽에 민간 심리상담기관은 시민들께서 그냥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국비사업이 추가되면서 중·저위험 건강 관련해가지고 총괄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광역심리센터는 중·저위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사업매뉴얼 평가기준 및 모니터링체계 개발·보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권역별 심리지원센터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마음투자지원사업이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올해 사업비만 해서 115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1인당 8회까지 마음건강바우처를 제공해서 민간 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라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심리센터는 올해 7월부터 새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기존에 있던 권역별 심리지원센터는 3억짜리 사업 4개소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체계가 조금 불안정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올해 12월 달에 그 4개소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1개 기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할 예정인데, 그 2개 기관 간 협업이 잘 이

루어져야 되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과 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산과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 내에서 정신건강 검진 및 심리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위탁센터나 기관이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유사·중복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듯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이 지금 인력과 시설규모를 보면 시설도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을 통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 주관부서 입장 )

### **<위원장>**

○ 부서 관계자 본인 소개하시고요.

### **<주관부서 (정신건강과)>**

○ 시민건강국장 000입니다.

## 〈위원장〉

- 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위원님.

## 〈000 위원〉

-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전문상담인력의 역량강화가 좀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고. 제안하는 건데요, 마음건강서비스는 실제로 지금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광역센터에서는 건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좀 축소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서비스의 경우에 개인심리평가랑 개인과 집단상담을 실시하시는데 집단상담 같은 경우에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비부모, 한부모가족, 산후우울증, 직장인 마인드업, 청년 마인드부스트, 학생, 노인, 재난심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시에 이분들이 다 모일까라는 이런 걱정이 돼서 약간 시범사업을 하는 건 좋으나 이런 상담을 주로 제공하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에 시비 지원사업 예산이 전체 7,700만 원인데 이 중에 전문상담가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게 6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관의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담을 제공 안 하는 건지. 그런데 상담사 갖기는 하던데. 이

상입니다.

## 〈주관부서 (정신건강과)〉

- 심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평가모니터링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심리전문가분들은 보통 자격증이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갖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역할에 충실하게 객원 전문가들을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을 상시인력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약간 좀 공무원처럼 돼서 혹시 상담서비스가 잘 안 되거나 평가가 좀 낮을 경우에 교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광역심리지원센터는 지원기능에 충실하게 인력을 뽑아서 관리하고, 상시인력을 최소화시키려고 일단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정부에서 지자체랑 매칭해서 하는 대규모 마음투자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아마 시민들에 대한 마음건강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첫 번째 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 잘 체계를 정비해서 효과성 분석과 그다음에 또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여태까지 그게 잘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심리지원센터는 그런 시민들에 대한 마음건강서비스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총괄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서비스는 최소화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 권역별로 심리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 내지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광역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했는데,

### **<주관부서 [정신건강과]>**

-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주위에 오히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권역별 센터가 있고 이 광역센터 같은 경우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권역별 센터를 통합을 하고,

### **<주관부서 [정신건강과]>**

- 한 군데로 모으지 않고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놔두는데 운영기관을 하나로.

### **<주관부서 [정신건강과]>**

- 채널은 많이 더 사실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소규모로

한 4명 있는 센터가 각각,

### 〈000 위원〉

- 지금 있는 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주관부서 (정신건강과)〉

- 지금 서울시가 각 실·국에서 나눠서 하는 상담기능이 있는 기관이 한 250개 되거든요. 저희가 4개만 하려고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전체 실·국에 있는 250개 산재되어 있는 상담기관들이 사실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서비스 절차도 없어서 그런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평가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심리지원센터 4군데는 너무 소규모로 조그맣게 운영하니까, 또 센터장이 다 있거든요. 다 상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다 각각 민간위탁 하지 않고 한 기관이 전체를 4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공간은 사실은 다 분산해서, 또 접근성 좋은 곳에 추가로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000 위원〉

- 250개 기관이라는 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주관부서 (정신건강과)〉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광역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각 구별로 기초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중증질환자들 중심으로 케이스 관리를 하는 곳이고요. 그것 외에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여성가족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기지원센터, 상담을 하고 있는 기관들, 그런 곳들이 250개 가까이 있습니다. 산재해서 각각 다 필요할 때마다 설립을 해서 거기서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아마 자치구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3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사실 다 다른 조례나 근거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 〈주관부서 (정신건강과)〉

- 법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상담센터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가 직접 관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광역심리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화된 매뉴얼도 제공하고, 또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평가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민건강국의 정신건강과가 시민 정신건강에 대한 총괄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능역할을 여태까지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지 불과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바우처사업을 계기로 해서 그런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 〈000 위원〉

- 그럼 시에서 일단은 중증대상군, 자살예방군하고 중·저위험군을 구분해서 대응체계를 만들겠다는 이걸 굉장히 환영할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두 가지 그 부분이 말씀 들으면서 우려가 생기는데요. 아시다시피 마음건강바우처가 시행이 되기 시작한 지가 이제 4년이네요. '19년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지역사회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지투사업 형태로 사실 진행을 시킨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전달체계가 한 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이 이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서 고유사업을 한 섹터를 잡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이게 상당히 시장화 되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걸 바우처사업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고. 결국 광역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들을 직접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고용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결국 그것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우처방식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돼요. 그렇죠?

## 〈주관부서 (정신건강과)〉

○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네, 이해가 되는데 그 경우에 지금 현재 시장에 이미 되어 있는 이 영역과의 충돌문제. 대상층이 일반시민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와의 충돌문제, 그다음에 시장영역과의 충돌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하여튼 잘 고려하셔서 그 안에서 어느 부분을 하나 포지셔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 〈주관부서 (정신건강과)〉

○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복지부에서 올 하반기부터 마음투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대규모 바우처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분야별로 일부 바우처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여기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마음투자사업을 하는 이유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 기간, 또는 병원까지 가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병원에서 주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신 분들 중심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 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자비로 상담소를 가거나 아니면 일부 저소득층들의 위기가구에서는 정부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일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을 선택할 때 민간 상담소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자격증이 종류만 한 2천 개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바우처를 받더라도 내가 어느 기관에 누가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이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 역할을 이 마음지원센터가 일단 우리 공공 부문이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관점이고요.

또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장에 있는 민간 상담소를 저희가 직접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안 중에 하나는 일정 기준의 자격을 갖고 있는, 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담소들한테 인증을 하는 서비스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되게 난립되어 있고, 이게 면허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나 자격증만 있으면 신고해서 상담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이 1주일 만에 따는 자격증도 있어요. 사실은 시민들이 몸이 아프면 야매 의사한테 가지 않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데 마음건강서비스는 속된 말로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가서 서비스를 안 받고 있어서 이게 만약 대규모로 시행되고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을 선별하고, 우리 공공부문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마음건강 광역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말

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혹시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 〈주관부서 (정신건강과)〉

- 고맙습니다.

( 주관부서 퇴장 )

### 〈위원장〉

- 보니까 취지도 좋고요, 민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으로 인증과 관련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 관련해서 민간 자격증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슈아내고 필터링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제 생각에는 뭔가 이게 법적인 근거나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이 센터명도 광역심리센터 그러면 이름 자체는 사실 직접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 관리나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도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 〈위원장〉

○ ‘광역심리지원센터’라고 지원이 들어가든지.

### 〈000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프로그램은 이미 한부모사업은 한 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은 다 청소년상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 〈위원장〉

○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공통되는 매뉴얼은 필요하지만 나름대로 고유의 목적사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모니터링하고 포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 진짜 힘든 사업일 것 같아요.

###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걱정입니다.

### **<000 위원>**

○ 센터명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 **<000 위원>**

○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업은 제가 보기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 **<위원장>**

○ 센터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광역심리센터라고 해서 광역심리인데 심리 하면 직접적으로 사업에 진행하는 것 같은데 약간 지원의 개념, 혹은 아까 나와 있듯이 어떤 사업의 내용을 봤었을 때 명칭에 대한 부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진 위원님께서 지금 약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 **<000 위원>**

○ 저는 오히려 서울심리지원센터가 4개소가 있잖아요?

### **<위원장>**

○ 권역별 심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것과 헷갈릴까 봐 이름에서 지원을 뺀 것 같아요.

## 〈000 위원〉

- 서울시심리지원센터는 어때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아마 국장님이 직접 오신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의회가 회기 시작이 이번 주에 되고 하니 지금 상황에서 명칭을 바꾸거나 해버리면 의회 상정 시기가 지금 굉장히 촉박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취지가 맞으시고 방향이 맞으시면.

## 〈위원장〉

- 명칭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공식명칭이 있지만 하자 내지는 다른 그런 센터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공식이름은 광역심리센터로 가고, 아까 무슨 마음센터 그런 것처럼 애칭이라든지 별칭은 따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번 안건을 걱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6〉 서울 기후테크 산업 지원(사무형 신규위탁)

### 〈위원장〉

-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안건은 기후환경정책과의 “서울 기후테크 산업 지원으로 기존의 녹색산업지원센터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합한 사무형 신규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6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기후테크 산업 지원은 성동구에 있는 재활용플라자 내에 입주해서 기후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녹색산업지원센터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합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개 센터의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그리고 저희 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통합운영을 권고한 바가 있어서 부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이 이 사업은 적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과 팀장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서울 기후테크 산업 지원 관련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민간위탁심의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두 센터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두 센터가 총 6명으로 3명, 3명이었고, 특히 녹색산업지원센터는 기존에 연구원 조직 9명 중에서 3명이 상주하는 구조로 그렇게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6명이서 운영하던 사업을 4명으로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업무범위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업무범위를 줄이고, 총사업비나 인건비 같은 걸 좀 조정해서 작은 수준으로 시작해서 통합의 의미를 살린 뒤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업무가 성숙화 된 다음에 인력이나 운영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통합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해서 논의 필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 주관부서 입장 )

### **〈위원장〉**

○ 착석해 주시고요. 본인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안녕하세요?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산업팀장 000라고 합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0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기존의 녹색산업이라는 것에서 기후테크라는 걸로 명칭을 변경을 하는 것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구매지원 부분은 일단 폐지를 하고, 2개 센터의 일을 통합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뭘 없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대상의 측면에서도 기존 녹색산업보다 기후테크라는 게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녹색산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범위가 더 특정화되고 좀 더 된다고 오히려 반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기존에 녹색산업으로 해서 지원하던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닌가요?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그 부분도 가져가지만 지금 기후테크라는 게 기후변화와 그 솔루션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산업이라서 좀 특징이 돼 있어서요. 예

를 들면 지금 5개 예시로 클린이라든지, 카본, 에코, 푸드, 지오 이런 식의 산업군으로 해서 국가 탄녹위에서 기후테크를 갖다가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기존에 녹색산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던 부분 중에서 서울 기후테크 산업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안 되게 되는 건가요?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그렇게 엄밀하게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겹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 〈000 위원〉

- 그냥 겹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녹색산업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는데 기후테크 산업 지원이라고 하면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예가 있을까요?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그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럼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다음에 그럼 지원대상은 거의 비슷한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 아주 명백하게 딱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취지 자체는 사업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네네.

**<000 위원>**

○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 읽으면서 자료에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단순히 그냥 기후테크 산업이라고 이름만 바꾼 건지, 이게 어떻게 늘어나는 건지. 사실은 클린 어찌고저찌고 5개 얘기를 해도 제가 너무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어떻게 사업이 바뀌는 건지 그 변경되는 내용이 사실 잘 안 드러나서.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사실 녹색기술, 녹색산업이라는 부분이 예전에 만들어진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되게 포괄적입니다. 지속가능성과 자원의 효율성

을 중점으로 뒤서 되게 포괄적인데,

### 〈000 위원〉

- 저는 사실 이름 바꾸는 것 자체는 현재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쪽으로 이름 바꾸는 것 자체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네,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리고 추가로 하는 사업도 한 2억 정도 내용이 스타트업 발굴, 경연대회를 열고, 수출상담회 하고, 실태 조사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돼서 내용이 좀 드러나면 이해하기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네, 알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다음에 기존에 2개 센터 합친 예산하고 신규 센터의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추가되는 사업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사업이 2억 정도고 기존에서 없어지는 것은 대충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게 그럼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



었고.

그다음에 조직도 기존의 2개 센터의 인력이 12명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직접 인건비 지급하는 인원이 6명이잖아요. 6명에서 4명으로 바뀌는데 기존 사업보다 더 사업을 였은 것이면 4명이서 이걸 다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4명에다가 민간위탁을 수탁하는 업체에서 몇 명 정도를 더 지원을 해서 이게 인력이 꾸러질 것을 예상을 하시는지.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색구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폐합을 시키면서 기능을 갖다 분화해서 녹색 구매, 생산,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부분은 통합센터로 가져오고,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는 교육부분은 저희가 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로 기능을 갖다가 가져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 일부만 가져가는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 〈000 위원〉

-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가져왔다라는 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기능이 크게 보면 녹색제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유통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는 녹색소비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소비자 교육이 하나의 큰 축이라고 본다면 그 교육부분은 저희 과에서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부분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 남아 있는 생산·유통 지원부분만 통합센터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업무가 덜어진다는 얘기죠?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네.

### **<000 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 기존의 인원이 3명이었잖아요?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네.

### **<000 위원>**

○ 그럼 그 3명 부분을 다 빼다고 해도 기존에 9명이었는데 신규는 4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그 9명이 녹색산업지원센터 9명 중에 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원인력이라서.

**<000 위원>**

- 그러면 수탁기관의 지원인력이라는 것은 비상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네네.

**<000 위원>**

- 그러면 그 비상근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그러니까 그게 지금 총액으로 해서 세 명분을 갖다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포션을 퍼센티지로 이렇게 따지는 부분이라서.

**<000 위원>**

- 그럼 그건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에 포함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아니요.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000 위원>**

○ 인건비에 그게 다 포함이 되나요?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네.

**<000 위원>**

○ 그러면 신규사업도 그걸 예산을 해서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수탁자하고 만약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녹색산업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서는 그런 방식, 자기네들 전사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상근인력으로 4명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어쨌든 4명이 이 사업을 끝나갈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것이군요?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네네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관련해서는 기후테크 정보제공 부분에서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자료 제작 부분에서 홈페이지 구축은 4,500만 원 들어가 있는 이것은 올해 신규 제작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홍보자료 제작에 1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기존에서도 비슷한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했던 건가요?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이것은 지금 새로 센터를 개관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용이 아니라 새로 저희 센터 홍보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잡았고요. 브로셔라든지 이런 걸 다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을 아예 새로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새로 신규센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다음에 기후테크 산업분석 및 실태조사에 7천만 원이 책정이 되

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태조사를 그냥 이번에 한 번 딱 해가지고 실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는 그런 측면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현황을 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관련자들에게 뉴스레터를 뿌리는 그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기후테크가 사실은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 자체가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심으로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저희도 물론 추정을 하고 하지만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런 홍보라든지 계속 할 것이고. 7천만 원이 들어간 것은 처음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 비용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씩만 들어가면 될 것이니까.

### 〈000 위원〉

- 그러면 산업분석 및 실태조사는 정말 런칭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정도로,

###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지속적으로도 물론 할 건데, 그런데 그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은 많이,

### 〈000 위원〉

- 줄어들 것이다?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네.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위원장>**

○ 잠깐만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주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 감사합니다.

**<위원장>**

○ 퇴실하셔도 됩니다.

( 주관부서 퇴장 )

**<000 위원>**

○ 개인적으로 이게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단순히 이 두 개 센터를 합쳐서 그대로 가는 부분이 약간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테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든 기관도 기술연구원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 4명을 가지고 기후테크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모양을 가져가는지 약간 조금 의아하기는 해요.

## 〈000 위원〉

- 최근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저는 가봤거든요. 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하면서 쓱 본 것이라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은 사무실 규모에, 사실 인증이라고 해도 녹색제품 자체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주로 세제나 이런 종류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두 개를 합쳐서 말씀하셨던 대로 할 것이면, 기후테크라는 이름으로 할 것이라면 좀 규모를 갖춰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저는 굉장히 죽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마찬가지로 걱정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 〈위원장〉

- 저도 성과분석에 기반해서 통폐합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구매 쪽보다는 산업 지원을 기후테크로 일단 명칭적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도 그와 관련된 스타트업 육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테크닉적으로 기후테크와 관련되어진 어떤 그런 스타트업을 양성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의구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 〈000 위원〉

- 취지는 좋은 표현을 갖다놨는데 실현 가능한가.

## 〈위원장〉

-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사실 제가 검토의견은 걱정인데 이걸 계속 읽어도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거창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걸로 가능한지가.

## 〈위원장〉

-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딱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그만큼 역량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퀘스천마크입니다.

## 〈000 위원〉

- 녹색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 여전히 큰 것들은 아니니까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자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용적으로 실효적인 지원이 될까라는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 〈위원장〉

-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분석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도출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 검토의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혹시 이걸 논의 필요로 하면 이게 정리가 될까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저희가 걱정, 조건부 걱정, 그리고 심의보류, 부적정입니다.

### **<000 위원>**

- 심의보류. 만약에 심의보류로 하면 사업내용이나 예산에 대해서 정리가 될까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심의보류로 하면 다음 차수 위원님들이 심의를 다시 해야겠죠.

### **<000 위원>**

- 그것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진행하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걱정 하고 권고.

### **<000 위원>**

○ 네, 걱정 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 기후테크 산업 지원이라고 했었을 때 기준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갖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좀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걱정 권고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리고 아까 참고로 예산과에서 검토의견 말씀드릴 때 처음에는 시범사업 정도로 하다가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예산은 연도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4명으로 하더라도 중간에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 크게 보면 이게 블루칩이기는 블루칩인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6번 안건은 걱정 권고로.

### **<000 위원>**

- 저도 하나 그냥. 예산에 위탁수수료랑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일반관리비라고 그래서 민간위탁사업비 말고 별도로 필요한 세금이라든지 다른 것을 추가로 낼 때 2%까지 계상을 하고요. 이윤은 5%까지 잡을 수 있고. 그 이윤에 대해서 10%까지 부가가치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 다른 기관들은 이걸 안 쓴 것 같은데.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이게 비영리기관은 없고 영리기관은 있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 법인의 특성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번 안건은 적정 권고입니까, 조건부 적정입니까?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적정 권고로 하고, 사업내용에 맞게 내실 있는 사업계획하고 인력구조나 예산편성 이런 부분 좀 조정하라. 이런 취지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렇게 약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7〉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관리 및 운영(시설형 재위탁)

## 〈안건8〉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관리 및 운영(시설형 재계약)

## 〈위원장〉

- 7번과 8번 안건은 청소년정책과의 “시립 강서,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각각 재위탁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7번, 8번 안건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재위탁 건이고요,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재계약 건입니다. 4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에서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총 6개소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강서센터는 상담, 교육 운영 실적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라서 특성 있는 자체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창동의 경우에는 특화 사례를 개발하는 등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6개 상담

센터가 같은 사무를 운영을 하는데 수탁법인이 모두 달라서 서비스 품질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 하나당 예산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좀 더 지났는데요, 지난 10년간 정책환경이 변화한 것을 반영을 하고, 운영성과 및 권역별 운영의 효과분석을 통해서 추후에는 센터를 통합 내지는 아니면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팀장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먼저 강서인터넷중독예방센터의 경우 인건비는 규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 중이고. 사업비의 경우도 센터의 인력 구조 특성을 감안하면 총세출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이 적정 수준으로 판단돼서 적정 의견 드립니다.

다음으로 창동인터넷중독예방센터의 경우는 인건비의 경우 규정된 인건비 정원 내에서 운영 중이고. 사업비의 경우도 총세출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이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적정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 ( 주관부서 입장 )

### **<위원장>**

○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장 000라고 합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서 강서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리스도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가 드러나지 않아서요. 왜 그동안 지속 운영해 왔었던 그리스도교 대학 법인에서 이번에 일단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를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

○ 처음에는 재계약을 하겠다고 의사가 있었는데 법인의 내부 사정으로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법인에서 여러 가지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얻는 이득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고, 이사회를 몇 번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안 하겠다 이렇게 포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사정이

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좀 어렵다. 알겠습니다. 전체 보면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4개소 같은 경우는 청소년센터 내에서 인터넷상담예방센터가 운영되어져 있고, 나머지 2개소 같은 경우는 보면 좀 동떨어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

- 동떨어져 나왔다는 게 시설,

### 〈위원장〉

- 쉽게 해서 시설 내에 어떤 센터가 아니고 일단은 예를 들어서 보면 강서 같은 경우는 개인 집을 개조해서 일단 실제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

- 저희가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강서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서 인터넷중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로 들어가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장소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거



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 장소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대부분의 네 군데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동일 법인이 센터도 운영하면서 동일 법인이 인터넷예방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

-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법인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또 별도의 다른 건물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이번에 보면 가정집을 리모델링해서 이 센터를 굉장히 예쁘게 꾸민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안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

- 거기가 큰길에서도 접근성이 되게 좋고, 소길에서도 도로변 앞에는 상가를 하고 있었는데 상가 쪽은 교육실로 개조를 했고요. 그리고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마당 뒤에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은 상담실하고 사무실로 개조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딱 보면 되게 아늑하고 편안하고 관공서 느낌이 나지 않게 저희가 좀 이쁘게 아이들 취향에 맞게 데크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

독되거나 과의존 그런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상담도 받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담이 있는데 담을 조금 낮춰가지고 마당이 보이게끔 하고, 문을 항상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놀고 가는 시설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강서 같은 경우는 정원 10명 중 현원은 11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분만이 전문심리상담사고 나머지는 일반직원들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담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예방상담인데 인원 비중이 약간 불균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문성과 관련해서.

###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

- 전문상담사라는 사업은 여가부에서는 청소년 수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전문상담사라고 해서 그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상담사라고 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담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상담을 하세요.

###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

의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상당히 특화된 상담센터인데 여기에 오는 그 청소년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의뢰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를 찾아오게 되죠?

###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

- 일단은 초등학생들은 부모가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혼자서 올 수 있는 그런 연령은 아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연대를 하는데 학교에서 학부모를 통해서 오거나 이렇게 하고. 나이가 든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친구들 소개로 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000 위원〉

- 청소년들이 자기가 인터넷에 중독됐다고 스스로 와요?

###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

- 그러니까 청소년들 고학년도 그렇고 주로 저학년들은 부모가 데리고 오죠. 혼자 오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됐다고 판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들이 많이 여기를 찾아오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끔 하느냐. 어떤 루트로

오느냐. 그게 궁금해서요.

###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

- 학생들이 다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들과 네트워크를 통하고요. 교사들한테는 그 지역에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이런 게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나가거든요. 학교로 교육도 나가고, 관계 무슨 센터에서 교육 좀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도 미디어 중독, 과몰입 이런 것에 대한 사례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상담 의뢰가 오고요. 놀이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는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런 걸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오는데, 대부분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고, 부모랑 같이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비자발적인 참여자가 많다는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

- 네. 청소년들이 스스로 오기는 쉽지 않죠.

### 〈위원장〉

- 빨리 발굴해서 조기에 개입이 필요하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주관부서 (청소년정책과)〉**

○ 감사합니다.

( 주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저는 7번 안건과 8번 안건을 모두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9〉 전태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시설형 재위탁)**

**〈위원장〉**

○ 9번 안건은 노동정책담당관의 “전태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9번 안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태일기념관은 종로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시설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민간위탁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본 시설은 2019년에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의 주요 위탁사무는 소장품 전시 및 관리, 교육, 홍보 등이며, 주관부서에서는 '22년, '23년, '24년에 걸쳐서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부진사업을 폐지하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노동교육의 경우에 노동권익센터에 동명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민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차별화가 필요하고요. 향후에 사업 추진할 때도 노동권익센터, 노동자복지관 등 사업의 대상 및 내용에 중복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팀장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태일노동복합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시설 규모가 2천㎡임을 감안했을 때 유사시설과 비교

하여 운영인력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측면에서 학예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강사비나 연구보고서 집필 등에 추가적으로 지출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랑 환류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 주관부서 입장 )

### **<위원장>**

○ 착석해 주시고요. 담당자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복지팀장 000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0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종합성과평가는 아직 지금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죠?

### **<주관부서1 (노동정책담당관)>**

○ 네,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고요.

## 〈000 위원〉

- 지금 제출된 심의의뢰서만 보고 전체적으로 의문사항만 몇 가지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8억 정도인데 2024년에는 또 13억 정도인 것 같고, 변동이 좀 있는데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주관부서〔노동정책담당관〕〉

- 전태일기념관이 '20년도에는 20억이었고요, '21년도, '22년도는 약 1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23년만 아시다시피 한 7억 9,800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때는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서 판단하시기에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전 수준을 해서 다시 정상적인 게 됐는데요.

## 〈000 위원〉

- 2024년이랑 2025년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2025년에 보니까 한 15억으로 늘어나는데 사업비 비중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늘어나고, 대신 인건비는 또 축소되는 이런 형태인데, 사업비가 사실 늘어나면 당연히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게 통상적인 예측인데 혹시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요?

## 〈주관부서〔노동정책담당관〕〉

- 저희가 쪽 정원은 14명이었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11명으로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무 대비 업무량이라든가 인력 같은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재위탁 시에는 효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지금 14명 현원인데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재정평가 때는 상설전시랑 기획전시를 한 묶음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홍보라든가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대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 그럼 2025년도에 사업비 비중은 이렇게 45%로 지금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종전에 26%에서요. 이런 특별한 이유라도 혹시 있나요?

##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 저희가 '23년도에 사실은 전태일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소장품이라든가 그 당시 역사에 증언하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23년도에 중단됐어요. 거의 사업을 못했습니다. 연속적인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노동아카이브, 노동구술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3년도에 못한 부분까지 올라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됐고.

여기 개관 당시에도 전태일재단에서 개관 준비부터 했을 때 소장

품 관리가 사실은 전태일재단에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했었거든요. 전태일기념관 관련된 증언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던 소장품은 인력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속성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 **<000 위원>**

- 아무튼 사업비가 계속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도 어쨌건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 네.

### **<000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탁업체가 전태일재단이 짱아요. 그런데 이걸 재위탁 공모를 하면 다른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나요?

###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 그 부분도 저희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시에는 민간위탁업무에 관련된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기관을 적격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경우처럼 전태일기념관 같이 노동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전태일 관련된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기관을 찾기는 그 폭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모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태일재단은 개관 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민간위탁을 잘 수행을 해왔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도 좀 더 확장시켜서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서요. 기념관과 유사한 박물관 등 민간위탁을 대행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지 민간 전문기관에 공모를 확대해서 좀 더 많은 기관에 알리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 주관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예산 관련해서는 약간 외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지금 '21년도까지 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근래 기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혹시 그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은 여기 추가 사업에 반영되도록 그 부분만 의견으로 달아 주시거나 걱정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걱정하고 의견만 좀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것은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합성과평가가 종료 6개월 전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의일정상 들어오는 것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재계약 같은 경우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해서 저희가 뒤로 미뤘는데 그게 아닌 재위탁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하고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지금 평가는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빨리 간 부분도 있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래서 권고로 넣는 것보다는 저희 부서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평 결과가 나오면 부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번 안건을 걱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10〉 제2서울핀테크랩 관리 및 운영(시설형 재위탁)**

**〈위원장〉**

○ 마지막입니다. 10번 안건은 금융투자과의 “제2서울핀테크랩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10번 안전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서울핀테크랩 관리 운영입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시설이고요,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무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사무공간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3년에 최초위탁,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재위탁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위탁기간이 지금 한 1년 반 정도로 짧기 때문에 현 수탁기관에 대해서 부서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개모집 하는 상황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짧은 운영기간임에도 목표달성률을 100% 초과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62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제2서울핀테크랩은 마포구에 있고 서울핀테크랩은 여의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의 시설이 연관된 일을 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이게 연관되어 있는 일을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수탁기관이 다르다 보면 그게 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두 개의 수탁기관이 '26년 말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것을 통합 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팀장님 예산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저희 예산담당관 의견은 조건부 적정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해당 사업은 2023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가 되었구요. 두 번째로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사업 이외에 필요한 예산이 전체 52%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핀테크랩과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지금 있는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현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에는 통합운영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실시켜 주십시오.

( 주관부서 입장 )

### **<위원장>**

○ 발표하실 분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두 분 다 편하게 작성하십시오.

### **<주관부서 (금융투자과)>**

○ 금융투자과 디지털금융팀장 000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서울핀테크랩하고 제2서울핀테크랩이 일단 대상을 구분하시고 스케일업 이런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그 기능이 중복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차별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 〈주관부서 (금융투자과)〉

- 저희가 제2서울핀테크랩을 개관을 할 때부터 그때 심의 받을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비슷하게 궁금해하셨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경향이 있고, 특히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구조다 보니까 더더욱 생존율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초기에 집중해서 인큐베이팅 기업 보육을 하고자 마련한 시설입니다.

### 〈000 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알 만한 어떤 성공사례라든지 기업이 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 〈주관부서 (금융투자과)〉

- 개관한 지 딱 2년밖에 안 돼서 아직 졸업을 한 기업이 나오거나 이너지는 못했고, 지금 1년차, 2년차가 된 기업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자랑할 만한 기업을 지금 현 단계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렵고.

### **<000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제2서울핀테크랩이 인큐베이팅을 주로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기업들은 주로 어떤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핀테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주관부서 (금융투자과)>**

- 기업마다 다양하게 있고. 사업모델이라는 게 경향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기업마다 다 고유의 사업모델이 있고. 어떤 기업은 보험 관련으로 핀테크가 있고, 어떤 기업은 정책금융 관련으로도 있고, 어떤 기업은 조각투자나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 **<000 위원>**

- 그럼 거기에 들어온 지 2년차 이렇게 된 기업 중에 졸업해가지고 이쪽으로 간 큰, 그러니까 성장기업 수준으로 간 기업들이 어떤 게 케이스가 있을까요?

### **<주관부서 (금융투자과)>**



- 2건 저희가 있고요. 브릭베이스라는 기업이 있고, 프로테크 기술을 가진 기업인데 잘 성장을 하고 투자유치를 잘 받아서 올해 제1서울핀테크랩으로 입주했습니다.

### 〈000 위원〉

- 그 두 기업은 벤처캐피탈에서 캐피탈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 기준이 뭔가요? 졸업했다는 기준은 매출인가요, 뭔가요?

### 〈주관부서 (금융투자과)〉

- 졸업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다가 잘 돼서 여의도에 있는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서 입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졸업은 저희가 2년을 육성을 하면 졸업 기업이 됩니다.

### 〈000 위원〉

- '23년 주요 재정사업평가 평가 결과 미흡을 받았다는 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유와 또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시는지. 대책을 갖고 계신지.

### 〈주관부서 (금융투자과)〉

- 저희가 사실 제1서울핀테크랩 여의도에 있는 핀테크랩과 마포에 있는 제2서울핀테크랩이 두 개가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마포 제2서울핀테크랩 같은 경우에는 초기단계다 보니 가시적인 성과가 제1서울핀테크랩에 비해

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성장 정도도 다 생존을 일단 우선하게 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미흡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기업을 보육하고 이런 것은,

### 〈000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걸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개별 두 개를 놓고 평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지금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미흡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미흡이 나오면 좀 큰 건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주관부서 (금융투자과)〉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두 개 사업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서 두 개 사업이 다 잘 되고 있고, 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 〈000 위원〉

- 주요 지적사항은 뭘까요? 미흡이 나오게 된 주요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신지.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저는 됐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지금 보면 위탁업체가 1년 반밖에 안 됐고, 나름의 소기의 성과가 있어요. 그리고 재위탁을 생각을 하면 2년 정도이면 이게 재계약도 가능한데 굳이 재위탁으로 선정한 부서의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우라면 재계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사업의 연속성도 그렇고, 사업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도 그렇고.

### **<주관부서 (금융투자과)>**

- 저희가 재계약도 고려를 해본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매우 짧았고 향후 위탁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재계약을 검토를 해봤으나 저희가 재계약을 하려면 종합평가를 한 번 받아서 우수한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종합평가를 받고 나서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재계약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관부서 (금융투자과)>**

- 감사합니다.

( 주관부서 퇴장 )

## 〈위원장〉

-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

- 그냥 적정에 권고사항으로 아까 나온 얘기들.

## 〈위원장〉

- 통폐합 문제.

## 〈000 위원〉

-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요 워낙 이게 아직 성과가 금방 나오기 어려운 미래 투자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이라. 또 말씀도 다른 분야도 사실 비슷하게 인큐베이팅하고 이쪽은 스케일업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통폐합은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뭐랄까요? 이런 약간 미흡사항 지적된 이런 것, 이런 얘기들은 좀.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참고로 아까 부서에서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비해서 당초 목표 대비 성과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팀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초기라서 성과가 안 나왔다,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이용률이 측정지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투자유치 그런 게 될 텐데 초기라서 미흡인 것 같아요.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제2핀테크랩은 초기 스타트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1핀테크랩보다는 약간 속성도가 떨어진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키워서 2단계로 넘어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다 보니 단순히 1테크랩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다만 여기 보니까 아까 예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임대료 파트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입주 기업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 한번 가고, 다음 번 할 때 정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실에서 거기 건물도 조성하고 있고 하니 공간도 공유재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센터하고 연계해서 통합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저도 그 정도 말씀하신 것으로,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적정? 아니면 권고?

## 〈000 위원〉

- 권고.

## 〈위원장〉

- 권고사항에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부분들 일단은 자세하게 적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안건을 적정 권고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마지막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11시 49분, 폐회】